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S&P 보고서: 내년도 미 경제 전망... 침체로 향한다
- Bloomberg: 주택 시장 둔화로 주택 가격 3개월째 하락
- CNBC: 4년째 가뭄 캘리포니아 도시들 '단수 대비' 경고

[미국 금융]

- WSJ: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가장 큰 폭으로 커져
- Bloomberg: 이머징 금융 시장, 올해 11월 수년 만에 최고 수익
- Bloomberg: 미 은행들 대출기준 강화... 침체 리스크 올라가
- Bloomberg: 4백20억 부채로 어려운 은행들 부채 처리 한다

[오일/에너지]

- CNBC: 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110불로 올라... OPEC 감산 가능성 탕"
- CNBC: Enel CEO, "에너지 시장 앞으로 1~2년간 극심한 변동성" 예상

[물류]

- CNN Business: 연방의회가 철도 파업 금지 추진에 시위 위협 줄어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슬루스 운용 "Fed 금리 인상에 美 제조업도 타격"
- 한경: 연준 고위 인사 "2024년에나 금리 내리기 시작할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주 5일 근무는 왜 과거의 일이 되었나
- Bloomberg: 미 근로자 3명 중 1명만 "내 임금이 공정하다"
- Bloomberg: 아이 돌보려 직장 떠나는 남성 증가
- WSJ: 태양광 패널 부족 때문에 미국 청정에너지 추진 혼란
- WSJ: Macy's, 젊은 층 노려 Claire's 매장 21개 유치한다
- CNN Business: Sears 존폐, 이번 크리스마스 넘길 수 있을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S&P 보고서: U.S. Economic Outlook 2023: Tipping Toward Recession
내년도 미 경제 전망... 침체로 향한다

[GDP 성장]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내년에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로 구매력이 줄고 고금리 정책으로 차용 비용 상승세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는 얇은 침체. 내년과 2024년 GDP는 각각 1.8%와 -0.1%로 9월에 전망했던 예상 수치보다 약간 더 약세(1.5%, 0.2%)

[중간선거]

선거 결과는 상하원 모두 약간씩 과반수가 넘어 향후 2년간 의회는 정체 상태 예상된다. 정부와 의회가 나누어지면 경제 정책의 중요한 변화 가능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노동력]

경제가 둔화되니 일자리 증가세는 약간 줄고 있는데 특히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의 경우 더 그렇다. 일자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연준이 긴축 금리를 과감하게 둔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노동인구는 팬데믹 전보다 현재 4백만명 줄어든 상태인데, 줄어든 4백만 중에 83%가 여성이다.

[실업률]

내년에 경기 수요 감소와 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내년 4분기에 5.6%로 오르고 점차 낮아져 2025년 4분기에는 4.7%로 예상된다. 4.7%는 올해 10월 3.7%보다 1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플레이]

인플레이는 올해 3분기 피크인 것 같으며 계속된 공급망 혼란으로 계속 고물가가 지속될 것 같다. 핵심 물가 지수는 2024년 하반기까지 연준의 2% 목표 보다 훨씬 상회한다. 수요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싼 가격에 재고를 풀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가 줄어들 것이다.

[연준 금리]

연준은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가 내년 하반기에 둔화되기 시작할 때까지 긴축 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연준 기준금리는 내년 2분기에 5.00%-5.25%로 피크가 된다. 가격 안정화로 연준이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에 줄어줄게 된다. 올해와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가 있다.

S&P 보고서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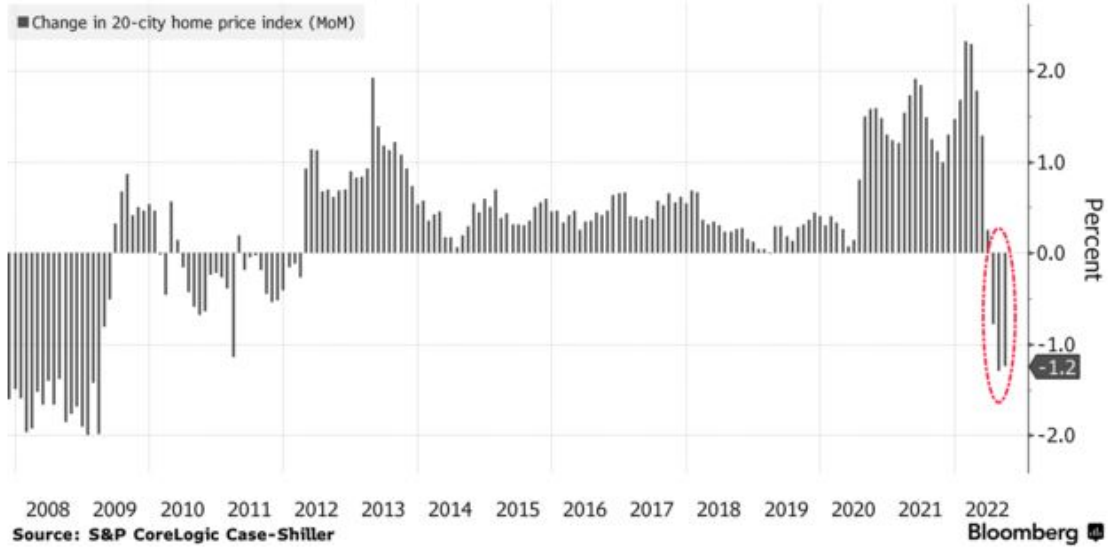
Bloomberg: Home Prices Drop for Third Straight Month as US Market Cools

주택 시장 둔화로 주택 가격 3개월째 하락

- 주택 시장이 9월에 더 하락해 8월보다 주택 가격이 1.2% 떨어졌다.
- 20개 대도시의 계절 조정치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S&P CoreLogic Case-Shiller index 결과 밝혀졌다.
- 주택 시장은 올해 갑자기 식기 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연준의 인플레이 대응 금리 인상에 따라 차용 비용 증가 탓이다. 덩달아 올해 모기지율이 두배 이상 오르면서 잠재적인 수요와 구매자들을 밀어제쳤다. 판매자의 주택 매물 리스트도 줄었다.

Housing Prices Decline for a Third Month

Rise in mortgage rates this year is putting a chill on US market



Bloomberg 기사

CNBC: U.S. warns California cities to prepare for possible water cuts and fourth year of drought

4년째 가뭄 캘리포니아 도시들 '단수 대비' 경고

- 연방 관리들은 캘리포니아 도시들과 산업체에 경고했다. Central Valley Project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이들은 4년째 가뭄 때문에 내년에 물 공급이 극히 제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물의 저장 수잔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센트럴 밸리의 농업 지역과 그레이터 새크라멘토 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피해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WSJ: Yield Curve Inversion Reaches New Extremes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기록적으로 커져

- 지난 수십년간 어느 때보다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져 연준이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거의 이기고 있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 지난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년물보다 0.78%나 더 떨어져 지난 1981년 이래 마이너스 격차가 가장 커진 것이다.

-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November Brings Best Gains in Years to Emerging Markets 이머징 금융 시장, 올해 11월 수년 만에 최고 수익

- 연준의 긴축 금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이 그 너머의 기회에 집중하면서 11월 이머징 금융 시장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
- 지난 2016년 3월 이래 개발도상 국가들의 주식, 통화, 지역 국채들이 큰 랠리를 보인 것이다. S&P 500 Index를 크게 능가했다. 2016년 3월에는 2000년대 초기 원자재 붐 이래 가장 큰 수익을 기록한 해였다.
- 모건 스탠리 등 대형 투자사들은 이미 달러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머징 시장에 혜택을 보게 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했다.
-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고 이 같은 여파가 선진국에 이르기 1년전부터 매도세가 시작되면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미 연준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해 가격이 너무 싸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후에 투자자들이 위험 감수 전환이 오면서 이들은 올해 초의 큰 손실을 빠르게 줄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Banks Are Tightening Lending Standards, Raising the Risk of a Recession 미 은행들 대출기준 강화...침체 리스크 올라가

- 연준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신용 상황을 조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 문제가 야기된다.
- 구체적으로 11월 초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연준이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의 경우 미 은행들이 중견기업, 대기업가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때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랐다.
- 물론 크레딧 카드와 다른 소비자 대출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과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

Bloomberg 기사

Bloomberg: Banks Stuck With \$42 Billion Debt Seize Chance to Offload It

4백20억 부채로 어려운 은행들 부채 처리 추진

- 대차대조표에 4백20억 규모의 바이아웃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올해까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 레버리지 론과 고수익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부채 정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TV 등급 비즈니스인 Nielsen Holdings와 관련된 채권과 용자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올해 연말까지 그들의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를 줄이려는 시도다.
- 이른바 중단된 부채(hung debt)를 대폭적인 할인을 감수하고서라도 처리해서 손실을 이번 회계연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리스크 담당 부서들과 관련 당국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대출 기관들은 Unilever의 차(tea) 비즈니스 인수를 지원한 15억6천달러의 정크론 매각에 거의 합의했다. 반면에 다른 정산 거래들 또한 연말이 오기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에너지]

CNBC: Goldman Sachs sees 'high probability' of OPEC cut — and expects oil prices to hit \$110 next year

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110달러로 올라...높은 OPEC 감산 가능성 탓”

-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화요일 OPEC이 석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에너지 동맹인 OPEC+은 지난 10월 초 오일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하루 2백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원유 가격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더 급격한 생산량 감축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한편 경기 침체 우려, 코로나19 봉쇄 재개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OPEC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국제 유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CNBC 기사

CNBC: Energy markets are facing 'one or two years of extreme volatility,' Enel CEO says

Enel CEO, “에너지 시장 앞으로 1~2년간 극심한 변동성” 예상

-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의 CEO는 이번 주 화요일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1~2년간 극심한 변동성(extreme volatility)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며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이다. 러시아가 다가오는 난방 시즌을 앞두고 EU로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한편 그는 2023년 유럽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확보와의 큰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물류]

CNN Business: Rail strike threat recedes as Congress prepares to impose unpopular contract on unions

연방의회가 철도 파업 금지 추진에 시위 협박 줄어

- 지난 수 주동안 계속되어온 화물 철도 파업을 하겠다는 위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 합의하기를, 10만명 이상의 노조원들에 대한 파업을 금지하겠다는 법안 지지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 그동안 비즈니스 업체들은 미 국내 화물 이동의 30%가 중단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번 행정부 대응으로 안도감을 보였다. 이미 4백개의 비즈니스 그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파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었다.

CNN Business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인포: 솔루션운용 "Fed 금리 인상에 美 제조업도 타격"
- 한경: 연준 고위 인사 "2024년이나 금리 내리기 시작할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Why going into work five days a week is a thing of the past

주 5일 근무는 왜 과거의 일이 되었나

- “Out of Office: Unlocking the Power and Potential of Hybrid Work.”의 저자 Anne Helen Petersen은 팬데믹 이후 사무실과 근무 시간에 대한 근본

적인 생각이 바뀌며 주 5일 40시간 근무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과거에는 더 긴 시간 일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헌신의 표시이자 승진의 방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직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단순히 몇 시간 일하는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Only One in Three Workers Think Their Pay Is Fair, Study Finds

미 근로자 3명 중 1명만 “내 임금이 공정하다”

- Gartner Inc.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근로자의 32%만이 자신의 임금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직 내의 신뢰 부족에 따른 것이다.
-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기존 노동자들보다 신입 사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근로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
-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급여 결정 방법에 대한 직원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e Men Are Staying Out of the Workforce to Care for Kids

아이 돌보려 직장 떠나는 남성 증가

- 연방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25~54세 황금기 미국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점차 하락해왔다. 지난달 직장에 다니거나 구직 중인 남성은 88.5%였는데 1950년대보다 9% 이상 줄었다.
- 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전업주부 남성의 수는 약 2백 10만명으로 전체 아버지의 18%, 그들 중 23%는 아이 돌봄을 이유로 꼽았다. 1989년 돌봄을 언급한 4%에 비해 늘었다.
- 이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 우세 분야의 임금 감소, 오랫동안 이어진 남성 학력 저하, 그리고 여성 노동 참여와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Solar-Panel Shortage Snarls U.S. Green-Energy Plans

태양광 패널 부족 때문에 미국 청정에너지 추진 혼란

- 미국은 극심한 태양관 패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가까운 항만에 수천개의 관련 컨테이너들이 미 관세청에 의해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 더 많은 컨테이너들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의 공장과 항만에 갇혀 있거나 유럽으로 우회해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미국이 중국에서 노동 착취로 이뤄진 관련 제품을 단속하는 법 때문이다.
- 문제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패널의 80% 이상이 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의 제조품이다.

WSJ 기사

WSJ: Macy's Hosts Tween Retailer Claire's at 21 Locations in Bid for Younger Customers Macy's, 젊은 층 노려 Claire's 매장 21개 유치한다

- Macy's는 십 대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패션 및 액세서리 체인 Claire's 매장을 21개 지점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고객 기반을 넓히고 전통적인 백화점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한 Macy's의 전략이다. 연말 시즌 더 넓은 층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
-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구매를 늘림에 따라 백화점들은 수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Claire's와 Toys "R" Us 등 인기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으로 백화점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Is this the last Christmas for Sears? Sears 존폐, 이번 크리스마스 넘길 수 있을까?

- 한때 아마존, 월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소매 체인 Sears는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2005년 Sears는 Kmart와 합병하면서 점포를 현대화하는 데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락하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좋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식을 되사는 데에 집중했다.
- 이 회사는 2018년 파산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전문가들은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소수 매장도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계약의 위약금 때문에 모든 매장을 닫지는 못한 것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긴 했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연준의 경고 “금리인하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최근 미국 증시가 바닥(S&P500 지수의 연저점 기준)에서 13% 가까이 반등했지만,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미국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전망이라고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역성장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 3분기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 된다. 지난 6월 말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9%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5개월 만에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S&P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S&P500 기업 중 지금까지 97%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